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1선거구 김혜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출산휴가로 인해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지난 2월 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버스 노선선정 시 일반노선버스 운행구간을 피하여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노선을 선정하여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수요가 많은 곳에 노선을 조정·변경하려는 것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저의 지역구인 강동구는 모든 버스(서울, 경기, 마을, 공항버스)의 경유노선 수가 50개 노선으로 자치구 중 최하위이고 서울시 평균 117개 노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개통 예정인 별내선 연장선의 암사역사공원역을 연계한 버스가 한 대도 없는 실정으로 버스노선 신설, 조정·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나 버스총량제, 중복정류장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245개 노선의 중복정류장수 현황을 보면 중복정류장의 수가 5개 이상인 노선은 173개 노선으로 70.61%로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는 유명무실하고 노선의 조정·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별로 운행거리에 따라 정류소의 개수가 차이가 있으나 모든 마을버스 노선의 중복운행구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반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중복 개수를 마을버스 총 정류소 개수에 비례하여 설치하도록 조정하고 함으로써 시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수요가 많은 곳에 노선을 조정·변경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